

與 “8·15 집회” 부각 vs 통합당 “5·18 사과”...여론전 총력

민주당 “통합, 광화문집회 참가 당원 조사하라” 통합당 “정강·정책에도 민주화운동 포함할 것”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일 여야는 각각 ‘8·15 광화문 집회’와 ‘5·18 민주묘지 사과’ 이슈에 집중했다. 여당이 ‘극우 집회’와 야당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극우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부터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와 통합당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당국은 조직적으로 집회에 참석한 단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참석자 명단을 확보할 것을 주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통합당을 향해 “집회가 끝난 지 5일이 지났는데 집회에 참가한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광화문 집회 참석한 당원 명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자기격리 및 진단검사를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통합당은 광화문집회와 선을 긋고 ‘5·18 민주묘지 사과’를 강조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실패를 통합당과 8·15 집회를 엮어서 책임을 피하려는 것은 응징하고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를 국민 통제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한 점을 부각시켰다. 보수정당이 처음으로 5·18 역사왜곡과 망언 등에 대해 사죄한 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따른 당내외의 긍정적 기류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어제 광주에서 보여드린 모습은 역사의 매듭을 풀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도 “저희 당에서 진작 했어야 할 일인데 너무 늦었다”며 “정강·정책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거듭었다.

이어 “민주당에 특별히 부탁하겠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서 통합당이 광주시민들이나 전남도민들께 하는 노력을 환영하고 응원해주시기 바라고 정치적 대상으로 비판하고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처럼 한 자리에

앉아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5·18 3법’에 통합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쟁점을 앞두고 있어 남은 8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소병철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국민안전 위협하는 먹거리 위해사범 근절할 것”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틈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선제적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사곡성군구례군갑)이 식약처 특사경 수사 대상과 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을 18일 발의했다.

식품과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

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기존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해 왔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을 같이 개정하지 못해 2019년 3.14일 이후 현재까지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사법경찰직무법’ 상 특사경 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포함하여 허위표시·광고로 국민을 기만,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도

록 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제외진단 의료기기법’ 역시 기존의 ‘의료기기법’에서 별도 분리돼 새로 제정되었으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같은 제외진단의료기기가 수사대상에서 누락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포함되게 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물티슈, 물수건, 종이컵 등 일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특별히 ‘위생용품관리법’ 상의 위생용품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나 위생용품의 안전에 대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불안감이 높아진 국민들께서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최재성 만난 주호영 “文대통령에 고언하고 협치로 가야”

최재성 “김종인 위원장과 대통령 만남 원활하게 해달라” 주호영 “협치 의지 없이 그런 표시만 한다는 우려 있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20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주 원내대표를 취임 인사차 예방하고 “김종인 위원장과 문 대통령 만남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회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배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최 수석은 “현재 김종인 위원장이나 주 원내대표가 대화에 열려있어 협치가 원활하게 잘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만남 의지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배 원내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 수석이 만남을 성사시켜달라고 부탁했다

보다 며칠 사이에 비대위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의견도 한 번 들어보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 수석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정무수석 자리가 대통령이나 국정운영에 반대되는 일, 여태까지 일을 취소하는 거라도 조언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지난번에 문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지만 워낙에 말씀과 다르게 정책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협치나 상생 의지가 없는데도 그런 표시만 하는 것 아니냐는 외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최 수석이 이 정권 마지막



수석인 만큼 고언하고 야당과 협치하는 길을 가길 바란다”며 “집권여당이 일반적으로 의회의 모든 상황을 이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 중심으로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질문한 10가지 사안에 대해 “아직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 대답을 듣고 싶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신임 수석의 첫 인사 자리이니 따로 요청하지는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229-6000
기사제보 222-2580
광고 직통 228-258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